정보

Alfred Schnittke: Symphony

No. 3

작곡가: Alfred Schnittke (1934–1998)
작품명: Symphony No. 3
장르: 관현악을 위한 4악장 교향곡
작곡 시기: 1981년
초연: 1981년 11월 5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 Kurt Masur 지휘 ·Gewandhausorchester Leipzig 연주
출판사: Sikorski
Boosey & Hawkes: https://www.boosey.com/cr/music/Alfred-Schnittke-Symphony-No-
3/3441
IRCAM: https://brahms.ircam.fr/en/work/symphonie-n-3-3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3(Schnittke)

알프레트 슈니트케의 Symphony No. 3은 1981년에 작곡된 대규모 4악장 교향곡이다 .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200주년 기념과 새 콘서트홀 개관 시기를 배경으로 위촉되었으며 , 1981년 11월 5일 새 게반트하우스에서 Kurt Masur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약 한 시간 동안 Moderato – Allegro – Allegro pesante – Adagio 가 이어지고, 하프시코드 ·오르간 ·전기 기타 ·베이스 기타가 거대한 관현악 안에서 현악과
금관을 보강한다. 슈니트케는 이 작품을 Bach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독일 음악사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독일 교향곡 ”으로 설명했다.

개요
이 교향곡의 출발점은 기념을 위한 위촉이지만 , 음악은 한 가지 시대의 양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슈니트케는 20명이 넘는 작곡가의 이름에서 글자를 뽑아 음 재료를 만들고, 고전 ·낭만주의의 장중함과 현대적인 불협화, 대중음악에 가까운 리듬을 한 작품 안에 배치했다. 이름을 음으로 바꾸는 방식은 독일 음악사를 인물의 목록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선율과 화음으로 바꾼다.

1981년 11월 5일의 초연은 Gewandhausorchester Leipzig와 Kurt Masur가 맡았다. 게반트하우스 공식 자료는 이 공연을 새 콘서트홀의 음향 가능성을 시험한 무대로도 회고한다. 슈니트케가 초연에 참석한 첫 유럽 교향곡 공연이었다는 기록은 작품의 탄생과 현장 경험이 가까이 맞물렸음을 보여 준다.

출판 정보

*Symphony No. 3*은 Sikorski에서 출판되었고, Boosey & Hawkes 작품 목록에는 연구용 총보 번호 PE 10340이 실려 있다. 작품 목록과 기관 자료는 전곡을 약 57~60분으로 안내한다. 출판사와 대여 경로에 따라 편성 약호와 악기 겸임 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주자는 사용할 총보의 파트 표기를 함께 확인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57~60분이다. 네 악장이 연속해 한 시간가량 이어지는 구조이며, 공연 템포와 반복 관행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달라진다.

편성

- 목관: 플루트 4(모두 피콜로 겸함), 오보에 4(제 4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4(제 3 E-flat 클라리넷·제 4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 4(제 4 콘트라바순 겸함)
- 금관: 호른 6, 트럼펫 4, 트롬본 4(제 4 콘트라베이스 트롬본 겸함), 튜바
- 타악기: 팀파니, 탐탐 3, 드럼, 큰북, 서스펜디드 심벌, 튜블러 벨, 벨·글로켄슈필, 비브라폰, 마림바
- 건반·하프·전기 악기: 하프 2, 피아노, 첼레스타, 하프시코드, 오르간, 전기 기타, 베이스 기타
- 현악: 제 1바이올린 16, 제 2바이올린 16, 비올라 12, 첼로 12, 더블베이스 10

오르간과 하프시코드는 교회 바로크 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음색을 제공하고, 전기 기타와 베이스 기타는 20세기 후반의 증폭된 소리를 더한다. 여섯 명의 타악기 연주자가 만드는 탐탐과 금속성 악기, 큰 금관은 일반적인 교향곡보다 훨씬 넓은 음역과 음량을 형성한다.

네 악장의 구성

I. `Moderato`: 음악사의 문을 여는 느린 움직임

첫 악장 `Moderato`는 낮은 음역의 팽창과 긴 호흡으로 대편성의 문을 연다. 바그너를 떠올리게 하는 저음의 무게가 관악과 현악으로 번지고, 서로 다른 시대를 가리키는 짧은 음형이 그 위에 포개진다. BIS 음반 해설은 독일 작곡가의 이름에 `Deutschland`를 덧붙인 말이 이 악장의 재료가 된다고 설명한다. 언어가 소리로 바뀌면서 기념의 표어가 교향악의 진행 속으로 들어온다.

II. `Allegro`: 빠른 몸짓과 패러디

두 번째 악장 Allegro 는 스케르초에 가까운 속도와 날카로운 악센트로 앞 악장의 무게를 흔든다. 짧은 동기가 빠르게 악기군을 옮겨 가고, 전통적인 춤이나 행진을 연상시키는 몸짓이 예상 밖의 화음과 부딪힌다. 경쾌함과 불안정함이 교대로 나타나며, 음악사의 기억이 정적인 박물관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움직임으로 들린다.

III. Allegro pesante: ‘das Böse’와 무거운

리듬

Allegro pesante 는 네 악장 가운데 가장 육중한 박동을 앞세운다. 독일어 das Böse (악)라는 말에서 얻은
여덟 음 음렬이 여러 양식 변주의 바탕이 되며, 푸부르동에서 폭스트롯까지 서로 먼 음악적 표정이 이 재료를
통해 이어진다. 장중한 금관과 거친 타악이 같은 음형을 밀어붙이면서 , 전통의 권위와 현대적 긴장이 한꺼번에 압축된다.

IV. Adagio: B-A-C-H 모노그램의 귀환
격렬한 세 번째 악장 뒤에는 느린 Adagio 가 놓인다. Mahler를 떠올리게 하는 긴 호흡과 가라앉은 음색이 앞선 충돌을 되돌아보게 하고, B-A-C-H 모노그램이 다시 나타나 독일 음악사의 기억을 한 지점에 모은다. 이름의 네 글자는 특정 선율을 장식하는 표지가 아니라, 작품 전체에서 여러 시대를 연결하는 음형으로 기능한다.
피날레는 거대한 기념식의 환희보다, 지나간 전통을 현재의 불안한 소리 속에서 바라보는 시간에 가깝다.

작곡가 이름에서 만들어진 음 재료

슈니트케는 Bach, Handel, Mozart, Schoenberg, Berg, Webern, Weill, Eisler, Kagel, Stockhausen, Dessau, Henze, Bernd Alois Zimmermann 등 20명이 넘는 작곡가의 이름을 글자와 음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이 모노그램들은 작품 안에서 완전한 원곡 인용으로 붙어 나오기보다 , 고전에서 낭만주의를 거쳐 현대적 질감으로 움직이는 양식의 암시를 만든다. 그래서 한 악장 안에서도 익숙한 장중함이 갑자기 전기 기타와 불협화의 거친 표면으로 바뀔 수 있다.

초연과 작품의 수용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창립 200주년을 맞아 새 콘서트홀의 시대를 열고 있었고, 그 배경에서 Masur가 슈니트케에게 대형 교향곡을 위촉했다. 1981년 11월 5일 초연은 이 기념 맥락과 작품의 복합적인 음악을 한 무대에 놓았다. 슈니트케가 말한 “독일 교향곡 ”은 특정한 국가 양식을 복원한다는 뜻보다, Bach와 Wagner, Mahler 이후의 교향악 기억을 현재의 음향으로 다시 시험한다는 뜻에 가깝다.

초연 뒤에도 이 작품은 전통적인 교향곡의 외형과 서로 충돌하는 양식을 함께 지닌 곡으로 다뤄졌다. 고전적 네 악장 순서를 지키면서도 하프시코드 ·오르간과 전기 기타 ·베이스 기타를 한 편성에 놓는 점, 이름 모노그램을
통해 작곡가들의 흔적을 변형하는 점이 연주와 해설의 중심이 된다. 1984년 Gennady Rozhdestvensky와 USSR Ministry of Culture Symphony Orchestra의 녹음은 초연 이후 작품이 음반으로 남은 초기 기록이다.

주요 레코딩

Gennady Rozhdestvensky / USSR Ministry of Culture Symphony Orchestra (1984 년): BIS 음반 해설이 언급하는 Symphony No. 3의 첫 녹음이다. 라이프치히 초연에서 몇 해
지나지 않은 시기의 기록으로, 슈니트케가 구성한 네 악장과 대규모 편성을 음반으로 보존한다.

주요 자료

Boosey & Hawkes, Symphony No. 3 작품 페이지: 1981년 작곡, Sikorski 출판, 57분의 길이, 1981년 11월 5일 라이프치히 초연과 상세 편성.
Boosey & Hawkes, 슈니트케 관현악 작품 목록: 네 악장의 tempo 표기, 약 60분의 시간, 연구용
총보 번호 PE 10340과 악기 겸임.
IRCAM, Symphonie n° 3 작품 자료: 작곡연도, Gewandhausorchester Leipzig 위촉, 초연
연주진과 편성.
Alfred Schnittke Akademie International, Alfred Schnittke 소개: Kurt Masur의 위촉 배경, ‘ 독일 교향곡 ’이라는 작곡가의 설명, 작곡가 이름 모노그램에 관한 자료.
Gewandhausorchester, ‘Großes Concert’ 자료: 새 게반트하우스 개관과 200주년 기념 시즌, 1981년 11월 5일 초연의 현장 맥락.
BIS, Schnittke 교향곡 음반 책자: Deutschland, das Böse, B-A-C-H 모노그램과 양식적 암시, 1984년 Rozhdestvensky 녹음에 관한 해설.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0:48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10:48 UTC by 안준영